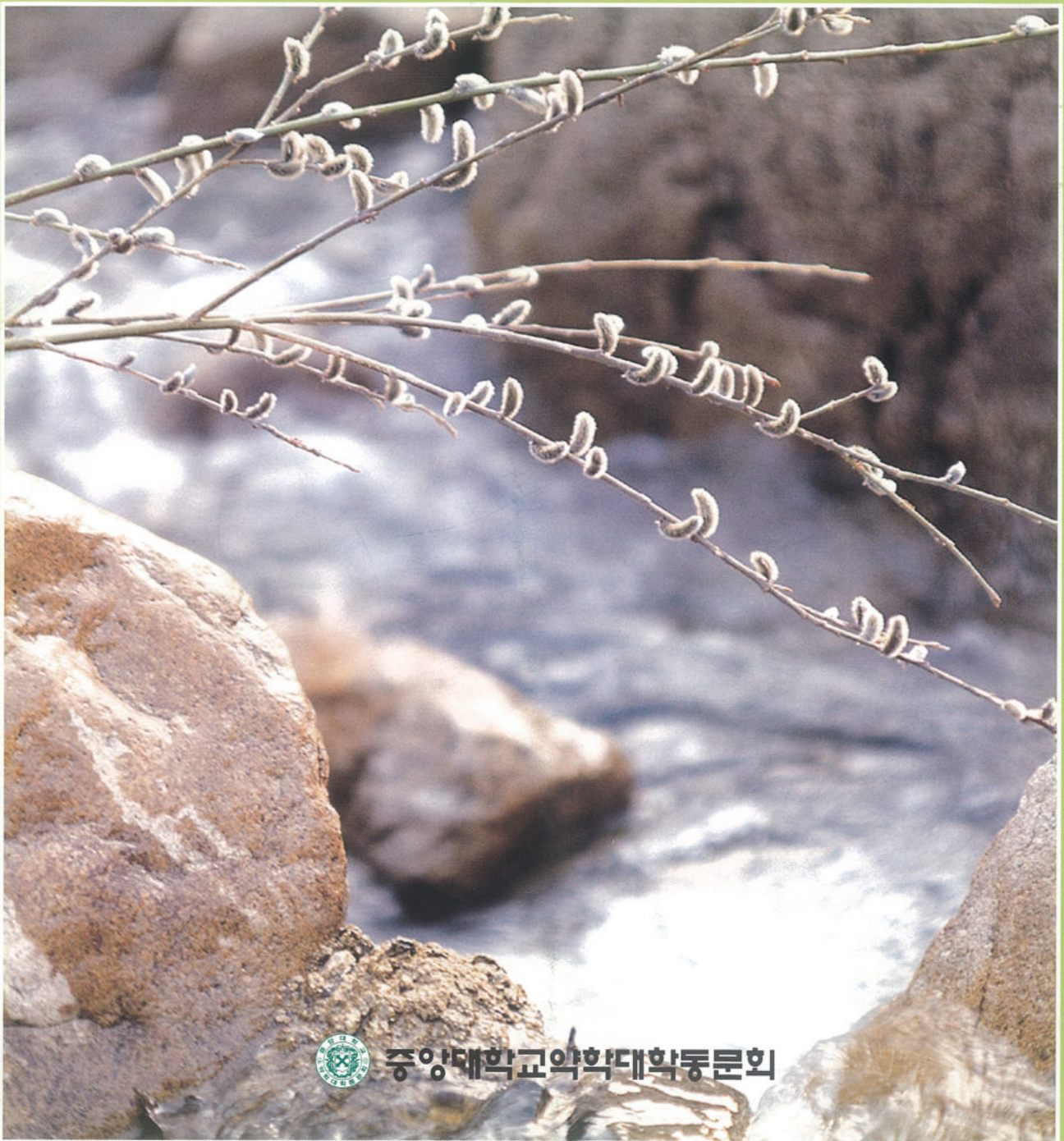


中央藥大 同門會報

봄

2004년 제15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04년 제15호 **봄**

CONTENTS

3. 시론
갑신년 새봄
4. 프로필
약사회장 · 서울지부 분회장 명단
전국 분회장 명단
8. 동문회소식
신년교례
모교교수 송년회
여동문회 신년교례
10. 지부별소식
대전지부/개인회비를 받지 않는 동문회
강남지부/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이룬 동문회
12. 여동문회소식
약학대학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한 여자동문회
14. 동기별소식
19회/우리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서
16. 동기회동정
7회/노력하고 봉사하는 삶을 약속하며
27회/성년, 그 자긍심과 책임감의 변주곡
20. 별난동문이야기
지적 재산권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
22. 약국도움이야기
약국의 현실과 미래
24. 만평
그래도 내일은 있다
25. 회원동정
26. 모교, 총동창회 소식
28. 동문기금
발전기금 조성 내역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
32. 문학산책
이제는 봄이구나
33. 편집후기



김 영 일
(7회, 감사)

“갑신년 새봄”

누가 뭐래도 약사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아니었는가? 무엇이 우리 동문을 회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는가? 한번쯤 되짚어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갑신년 새봄이 되었다. 십이간지 중 제일 지혜롭다는 원숭이 해다.

중앙인의 긍지 속에 발전되어 온 우리 동문회는 작년, 그간 3년 기간의 대임을 마친 13대 유영후 회장의 후임으로 14대 동문회장으로 임상묵 회장이 추대되어 앞으로 2년의 임기를 맡게 되었다.

또한 대한약사회도 3년간의 한석원(8회) 동문이 회장의 임기를 이제 끝내고 원희목(서울대) 회장이 새로이 선출되었다.

새 대학회장이 의약분업을 둘러싼 상대단체의 집요한 흠집내기에서 약사의 권익을 지켜주는 선봉장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약사회의 회장 선출은 이제까지의 간선 방식에서 직선제로 바뀌어 처음 실시되는 선거에 안타깝게도 우리 동문이 대한약사회를 비롯하여 각 지부에 많이 출마하였으나 큰 충격만을 안겨주었다.

누가 뭐래도 약사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아니었는가? 무엇이 우리 동문을 회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는가? 한번쯤 되짚어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제일 먼저 이제까지 실시되어온 간접선거 방

식이 직접선거로 바뀐 시대적 변화에 적응이 부족했다고 본다.

직접선거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에 우선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 어느 대학 출신보다 많은 6천 동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다수의 자만이 있지 않았을까?

끝으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좀더 일찍 동문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새해에 새롭게 좀더 굳건히 동문이 하나되게 하는 기회로 삼아 임상묵 회장을 중심으로 뭉쳐 주기를 바라며, 약사회와도 유기적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타 업계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약사의 직위가 향상되도록 동문회원들이 각자 지금 서있는 위치에서 모범을 보이고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시 타 동문 약사로부터도 신뢰와 협조도 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동문회 내적으로는 전기로부터 시작한 모교 발전기금모금운동에 좀더 박차를 가해 더 많은 회원이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부활된 가을 체육대회 행사도 더 많은 동문의 참여 속에 동문 화합의 장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약사회장 · 서울지부 분회장 명단



대전시 약사회장



홍종오 (21회)
- 종오당약국

성북구지부장



조찬휘 (15회)
- 수보약국

도봉 · 강북구지부장



신상직 (17회)
- 상아약국

금천구지부장



이호선 (20회)
- 세종약국

동대문구지부장



김형근 (22회)
- 해동그랜드약국

강남구지부장



유대식 (22회)
- 동명약국



동문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약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Profile

종로구지부장



임준석 (23회)
- 수도약국

성동구지부장



김영식 (23회)
- 테크노팜대중약국

중랑구지부장



정덕기 (23회)
- 영일약국

서초구지부장



이규삼 (24회)
- 한서약국

강서구지부장



최두주 (25회)
- 동방약국

송파구지부장



진희억 (26회)
- 종로프라자약국

전국 분회장 명단

부산시 기장군



신 군 섭 (13회)
- 화전약국

부산시 진구



송 열 호 (20회)
- 부일약국

부산시 사하구



배 성 진 (20회)
- 팜메이트푸른약국

대구시 달성군



오 한 희 (25회)
- 강창당약국

인천시 중구



김 구 영 (21회)
- 원지당약국

인천시 남구



강 석 봉 (24회)
- 한음약국

인천시 계양구



문 형 철 (26회)
- 한길약국

인천시 강화군



권 영 직 (24회)
- 청원약국



동문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약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Profile

경기도약 16개 분회장

- ▷ 양평군 : 김홍식(2회) 영신약국
- ▷ 이천시 : 박희철(8회) 새유명약국
- ▷ 평택시 : 황태선(9회) 태선약국
- ▷ 포천시 : 김명수(14회) 보건약국
- ▷ 안양시 : 이극선(20회) 대림약국
- ▷ 고양시 : 박기배(20회) 행복한약국
- ▷ 파주시 : 조진환(20회) 모범약국
- ▷ 하남시 : 한성희(21회) 상록수약국
- ▷ 과천시 : 강희윤(22회) 맑은샘약국
- ▷ 안산시 : 이범도(24회) 온누리한일약국
- ▷ 수원시 : 이내흥(25회) 건강약국
- ▷ 오산시 : 오근택(25회) 참사랑약국
- ▷ 의왕시 : 박영달(27회) 성모프라자약국
- ▷ 화성시 : 김정호(27회) 조암약국
- ▷ 구리시 : 최용철(28회) 구리종로약국
- ▷ 용인시 : 김광식(30회) 윤약국

강원도약 8개 분회장

- ▷ 횡성군 : 박지상(9회) 광신약국
- ▷ 동해시 : 최인걸(20회) 동해프라자약국
- ▷ 홍천군 : 김동학(21회) 중앙약국
- ▷ 양구군 : 신길득(21회) 시장약국
- ▷ 고성군 : 김민선(22회) 흥제당약국
- ▷ 강릉시 : 최태영(26회) 강릉태평양약국
- ▷ 양양군 : 이채권(26회) 양양군민약국
- ▷ 평창군 : 이은주(28회) 중앙당약국

충북도약 1개 분회장

- ▷ 영동군 : 류효성(14회) 효성약국

충남도약 4개 분회장

- ▷ 부여군 : 이희영(14회) 임천약국
- ▷ 서산시 : 정기춘(26회) 세계로약국
- ▷ 논산시 : 박정래(26회) 성신약국
- ▷ 태안군 : 윤도희(28회) 유명약국

전라북도 2개 분회장

- ▷ 남원시 : 이상현(16회) 시장종로약국
- ▷ 완주군 : 김태성(17회) 십자약국

충경북 7개 분회장

- ▷ 김천시 : 최재욱(8회) 천사약국
- ▷ 의성군 : 김학진(9회) 대진약국
- ▷ 문경시 : 김지수(15회) 김약국
- ▷ 고령군 : 조무원(16회) 흥아약국
- ▷ 예천군 : 채희태(19회) 영약국
- ▷ 영주시 : 원경선(24회) 동원약국
- ▷ 안동시 : 임무호(24회) 고려약국

경남도약 1개 분회장

- ▷ 창원시 : 주상돈(27회) 대우당약국

제주도약 1개 분회장

- ▷ 북제주군 : 김병현(13회) 신한당약국약국



동문회소식



신년교례

△일 시 : 2004년 1월 9일

△장 소 : 동문회관

△참석자 : 임상목 회장(8회), 박찬희 여동문회장(11회), 오세형(3회), 김채운(5회), 임완호(6회), 조의환(8회), 김돈기(8회), 허근희(8회), 이규진(9회), 권혁구(9회), 박호일(10회), 김 구(12회), 문재빈(13회), 엄태항(14회), 정명진(18회), 김경오(19회), 김미담(19회), 박영달(27회)



모교교수 송년회

△일 시 : 2003년 12월 22일

△장 소 : 팔레스호텔

△참석자 : 유영후, 임상목, 한덕용, 김종갑,
손동헌, 이광표, 김기호, 허인회,
임철부, 김미영, 염정록, 최영욱,
이민원, 임채욱, 황완균, 김하형,
김홍진, 심상수, 손의동, 천영진,
한상범, 황광우, 박종화



여동문회 신년교례

△일 시 : 2004년 2월 5일

△장 소 : 동문회관

△참석자 : 임상목, 박찬희, 정덕화,
박명자, 신정숙, 김경희,
박숙자, 최춘자, 문옥자,
강옥희, 김미담, 김희식



개인 회비를 받지 않는 동문회



임 유 재
(13회, 지부회장)

교통의 중심지이며, 행정의 중심지가 될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는 1964년에 16명이 모여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동문회의 위상과 단합하는 모습을 타 대학 동문이 우러러 보는 막강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대 충남 대전시 약사회장을 역임하신 동문은 한만우(3회), 김형태(4회), 한민희(4회), 허룡(9회), 임유재(13회), 이종건(13회) 동문 등이 약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였으며, 현재는 대전광역시 지부장을 홍종오(21회) 동문이 직선제 회장으로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되어 중앙대 동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많은 동문이 현재 약사회의장 및 임원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형약국 등 존경받는 약국으로 국민건강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만우(3회) 동문은 현재 한방 및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한국신약” 회장으로 상공회의소 회장, 재향군인회 회장, 반공연맹 회장, 적십자 지부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며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약사입니다. 현재 동문회 운영은 1982년부터 많은 기금을 확보하여 회비를 내지 않는 동문회로 유명합니다.

역대 회장들의 노력으로 각종 사업 및 회원화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한민희 : 4회), 수석부회장(임유재 : 13회), 총무(이양섭 : 15회)로 운영되며 원로회(1~2회), 청룡회(20회이상 회장 이창환 : 21회, 총무 박용삼 : 29회), 여약사동문회(회장 한옥규 : 12회, 총무 최경숙 : 30회)로 구분하여 각기 운영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전 동문이 모여 전체 동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수 회장을 두어 기수 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13회(회장 김성중)는 동문회의 중추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은 골프회(회장 조영연 : 14회), 테니스회(회장 김종인 : 8회), 산악회(회장 채부성 : 13회), 장학회를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취미활동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회는 봄, 가을로 2회 등반대회를 개최하며 전국의 유명산은 온 가족이 함께 형님 아우 하면서 건강증진과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회갑을 맞이하신 선배님들에게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이룬 동문회

1985년 강남동문회는 이동화(1회) 선배님을 중심으로 되어 권중욱(5회), 김병기(6회), 이능세(7회), 이승규(11회) 선배님 등이 주축이 되어 처음으로 동문회가 발족되었다. 초대 회장에는 권중욱(5회), 총무에는 윤대봉(14회) 동문이 소임을 맡아 강남동문회가 형성되었다. 한창 번성과 발전을 이룩하는 시점에 또 다른 변화의 암초에 부딪혔다. 1988년 강남구가 강남, 서초로 분구 되면서 동문회도 반쪽이 되는 불행한 사대에 직면한 바, 다시 강남동문회는 이동화(1회), 김병기(6회), 임진택(6회), 박옥규(7회), 허청욱(8회), 박성학(9회), 박영실(10회) 선배님 등이 주축이 되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오늘의 강남동문회를 다시 이룩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남동문회는 매년 3월 1일에 총회 겸 척사대회로 선·후배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짐하고, 청계산 등반대회, 국내외 여행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하였다.

약사회로는 서울의 제일 큰 분회로 성장했으나, 1980년 강남구 약사회 창립시 초대

장에 이인석(15회) 동문이 역임한 이후 20여년간 권중욱, 윤대봉, 유대식 동문 등이 도전하였으나 역부족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 강남동문들은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후배 양성과 강남구 약사회장 만들기에 노력한바 드디어 2004년 9대 강남구 약사회장에 유대식 동문을 단일후보로 당선시켰고, 그동안 황규진(24회), 이준(29회) 등 유능한 후배들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의 강남구 동문회 및 강남구 약사회의 새시대 도약의 발판을 이룩한 동문회가 될 것을 믿어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실행된 약사회 직선제로 동문간의 반목이 형성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동문화합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해 본다.

또 모교발전기금 모금에 방순환 동문의 일억이천만원 기부는 우리 강남지부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강남동문회가 좌초되고 실의에 빠졌을 때 항상 뒤에서 격려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강남의 신사 이동화(1회) 선배님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윤 대 봉
(14회, 지부회장)



여동문회에서 전화를 받았다.

“신춘동문회지”가 간행되는데 여동문회와 관련된 내용을 투고해 달라고 한다.

애당초 예쁘게 발전하는 모습이 있을 테니 어려운 내용이 되겠지만 내 스스로 선뜻 나설 자리인지 주저해진다.

좌우간 기쁜 뜻으로 마음을 열어보고 싶기도 하다.

| 여동문회소식 |

약학대학 발전과 귀적을 같이 한 여자동문회



장 레 (1회, 고문)

돌이켜 보건데 내가 대학을 졸업한지 어언 50년에서 3년이 모자라는 47년이 되나보다.

반세기의 세월이 흘러갔고 입학을 합하면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잠깐 흘러간 세월이 회한의 정을 몰고 온다.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동문회만이 누구나 인정할 만큼 자랑스러운 동문회가 되어 이어왔으며, 그러던 중 20년이 흐른 다음 우리도 총동문회의 대동단결에 도움이 되어 더욱 동문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다는 취지와 여성 졸업생의 팽창을 흡수·단결할 것을 다짐하며 여자동문회가 발족되었다.

원래 중앙대학은 故 승당 임영신 여사의 자랑스러운 여성 교육의 요람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에 여성 전문교육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낸 빛나는 학교이다.

여성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우리 모교가 여자동문을 결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6.25 사변의 어지러운 전화속에 약학대학은 태어 났고, 학교의 우선적인 총력지원으로 밀어주는 힘이 약대의 발전을 가져왔으니, 약대 총동문회도 역시 발전에 발전을 기하며 매진하는 중 수 많은 여성동문의 자랑스러운 창구가 곧 여자동문회였다. 결국 우리도 여자동문회에 우선 각기 졸업기를 찾아 명단을 작성하고 기대표가 모여서 임원회를 가져 매월 서로 모여 친목을 다짐하고 총동문회를 보조하기로 시작되었는데, 총동문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잘 운영 되었으니 이것도 대외적으로도 우리 약대동문의 자랑이 아니었을까? 무상한 세월이 아쉬웁게 지나면서 어언 47,8회의 졸업생이 사회로 배출되면서 우리 씩씩한 후배들의 여전한 노력과 단결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약대 동문의 단결 발전에 앞장서고, 우리 여성 동문들의 열정을 멀리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을 항상 감사한다.

이제 우리도 이미 칠순이 넘었고 젊고 패기찬 후배들의 몫이 된 우리 동문회가 더욱 빛나는 발전을 도모하길 빌어본다.

동문회의 발전은 바로 모교의 발전이 되는 것임을 우리도 잘 알지만, 동문회라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모교의 발전일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동문 각자의 어려운 사향도 파악분별하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복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우리도 졸업 후 각기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답게 생업에 관계되는 고로 절대 동문회의 존재가 커다란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초창기에 나도 서울시의 각 구별로 있는

동문회(지역)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참석하여 여자동문의 명단을 입수할 때 각 지역에서도 이해와 동조적인 마음으로 환영하는 곳도 있었으나 어느 지역은 벽안시 하는 곳도 있었다.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회상해보면서 멀리 강건너 앞산에 그려보기도 하고, 한강 물안개 속에서 추억을 찾아내기도 하는데, 너무나 미흡했던 나의 부끄러움이 앞서기도 한다.

총동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던 선대 회장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감사사를 드리며, 그분들도 덧없이 지나간 세월들을 바라보고 계시겠다는 생각을 하며 쓴웃음을 지어본다.

그러나 동문이란 인연으로 만난 우리 모든 동문들은 언제 만나도 반갑고 스스로없고, 특히 우리처럼 나이 지난 사람들은 후배다 하면 무조건 정스럽고 이쁘기만 하니 이런 인연이 어디있을까!

나도 늦게나마 나의 연륜을 깨닫고 일선에서 청산하고 시골 산중 조용한 곳에 세상의 먼지를 털어버린 양 들어앉아 있다.

그러면서도 몇 십년을 인연으로 이어온 도봉, 강북 동문회의 인수회에 참석을 한다. 그 인수회에 나가면 왜 그리 반가웁고, 정다운 얼굴들이 많은지, 그곳은 나의 늙음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마치 한가족 식솔들처럼 허물없는 즐거운 자리이다. 노여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시기도 없는 참모임이다.

그러기에 여자동문들도 임원회에 참석 안하는 분도 지역마다 동문회가 있으니 열심히 참여하여 즐거움이랑 나누고 괴로움일랑 위로를 받으며 친근한 형제애를 찾게 되라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지역에서나마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동문회가 발전하고 동문회의 발전은 곧바로 모교의 발전이 되는 것이리라.

이렇게 평등한 친교가 이루어지면 동문회

란 많이 가진자도 없고 적게 가진자도 없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도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새겨두며, 형제의 우애로서 파란 잔디밭에 우리 중앙약대 여자동문회란 글자를 수놓으면 영원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 앉아 회상해보니 인생이란 별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마지막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지난 세월속에 넘치게 살았던 것이 더욱 후회스러운 것이 많고 모자라게 살았던 날이 더욱 아름다운 추억을 씹게하니 놀라웁다. 그러기에 누가 말했던가? 넘치는 것보다 모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동문회만이 누구나 인정할 만큼
자랑스러운 동문회가 되어 이어왔으며,
그리던 중 20년이 흐른 다음 우리도 총동문회의 대동단결에
도움이 되어 더욱 동문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다는 취지와
여성졸업생의 팽창을 흡수·단결할 것을 다짐하며
여자동문회가 발족되었다.**

자라는 것이 낫고,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낫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대부분 동문들은 약국에서 기계처럼 자기 자신을 빼놓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바쁜 시간들 일지라도 부디 나보다 남을 위하는 것이 복된 것이니 툼툼이 약국에서나마 이웃에게 잠시 눈을 돌려 보면 그 손해가 이익이 된다는 행복감을 후일 알게 될 것이다.

석양길 오솔길에 마지막 준비에 당황하는 선배들보다 더 값지고 자랑스러이 전진하는 우리 후배들의 모습에 고마움을 배로 합쳐 박수를 보내며 무궁한 우리 중대약대 동문회의 발전을 빌어봅니다.

우리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서...



김 경 오
(19회, 동기회장)

아! 참 세월 빠르다.

33년전 흑석동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84번 중점에서부터 현재 중앙대 대운동장 위에 있는 이공대건물인지 그곳까지, 그리고 또 계단으로 4층까지 정말 허벌나게 숨차게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교양학부 1년을 보내지 않았나 싶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였지만 그때도 예비고사, 본고사 다 치루며 고3의 억눌리고 짓눌렸던 압박에서 해방되어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정신없이 후레쉬맨 1년을 지낸 것 같다. 어쩌면 요즘 우리 아이들보다 더 놀았는지도 모르겠다.

전국 약학대학 약창연합회, 일명 약창회란 약대생 씨클에 가입하여 전국 9개 약학대학 총연합회의 회장으로 뽑히고, 1971년 가을에 시청앞 서소문 정동 교회의 켈센기념관에서 전국약대 1학년 문학의밤을 당대의 유명하셨던 경희대

조병화 교수님과 숙대 김남조 시인을 모시고 주최하여 작품평을 들으며 감격해하던 약대 1학년생들의 모습, 그리고 그시절 전국에서 톱을 달리던 중앙대 연극영화과 1학년 신입생들의 찬조공연, 입추의 여지없이 꽉찬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몹시 고무되었던 당시의 우리들의 모습을 되뇌이며 미소를 지어본다.

행사후 돈이 부족해서 결국 녹음기 등 장비를 맡기고 지방에서 온 손님들을 대접하고, 우리 중앙대 약대 1학년 스태프들은 밥도 못먹고 강소주를 마시며 덕수궁에서 아현동까지 감격에 겨워 울며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금은 부산시약사회에서 부회장을 맡고있는 옥태석, 안산시의 이창욱, 남상구, 동두천에 있는 차영수, 관악구의 윤건섭 등 정말 잊을 수 없는 당시의 둘도 없는 친구들이다.

2학년에 올라와서는 약대건물인 파이퍼홀에서 공부하면서 “왜왔던가 왜왔더언가 약학대학 왜왔던가~ (중략) PPT란 웬말이나~ 유화수-소 가스 속에 약학도는 울고간다~”라는 슬픈 의미 있는 노래를 두드리며 흑석동 연못시장을 전전하며 젊음을 논하면서 중앙인으로써의 자질(?)을 키우지 않았나 싶다.



그 시절에 당시 여학생대표 김정희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내가 과대표로 당선되고, 그 인연으로 우리 동기들을 가장 많이 알게 되어 현재까지도 동기회장을 맡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동기들의 근황을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교수가 되어 후학을 가르치는 동기가 충남대약대의 권광일 박사, 동덕약대의 안형수 박사 등이고, 약학박사로써는 권창호, 옥태석(학위중인가?) 등이다. 약사회 회무에서는 울산의 유태일 동기가 울산 중구 분회장, 울산시 지부장을 역임했고, 울산시 의회의원 및 의장을 지냄으로 우리 동기들을 빛내주었다. 김경오(서울 동대문약사회장), 김행소(경남 충무시약사회장), 박효식(강서구 동문회장), 송택용(부평시약사회장), 성귀현(안양시신협이사장), 옥태석(부산시약사회 부회장), 이경옥(서울시약사회 의약분업정책단장), 이석명(강릉시 약사회장), 임종철(북한어린이돕기회장), 최원섭(부평시약사회장) 등 많은 동기들이 회무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 동기중에 미국으로 이민가서 개국하고 있는 친구는 김원규(L.A), 오상욱(리노) 등 두명이고 현재 약국을 잘 하고 있다. 또 우리 동기중에 특별케이스로 소개할 동기가 한명 있다.

약사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원주희 동기는 현재 말기 암환자들을 돌보는 시설인 샘물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호스피스가 열악한 시점에 오래 전부터 뜻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지금은 국내 기독교 유일의 호스피스 센터가 되어서 암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원목사가 회장인 샘물호스피스의 운영은 100% 돕는 손길로써만 운영된다고 하는데 매월 일정액(일만원 또는 그이상 원하는대로)을 지로 또는 계좌로 입금하

약사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원주희 동기는 현재 말기 암환자들을 돌보는 시설인 샘물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호스피스가 열악한 시점에 오래전부터 뜻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지금은 국내 기독교 유일의 호스피스 센터가 되어서 암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면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 동기 및 동문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얼마나 보람있을까 기대해 본다.

우리 여자동기들은 아직까지도 매월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연히 목동쪽에 많이 사는 관계로 그쪽지역에서 주로 모이는데, 이경옥과 김홍옥을 중심으로, 김정희, 민상임, 서원화, 안병은, 이은영, 이희진, 지명희, 최종숙, 그리고 현재 여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미담 동기 등은 가끔씩 만나곤 한다.

우리 71학번 동기들은 지난번 졸업 20주년때 만나고 의약분업의 와중에서 아직 모이질 못해 아쉬워하지만, 금년 봄에 한번 모여서 졸업 30주년(2005년 10월경)을 멋지게 준비하려고 한다.

새로이 19회 동기생들의 주소록을 제작하여 올봄에 배포할 예정이고 30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멋진 만남도 기대해본다.

우리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신화우 교수님의 출석 부르는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린다, “1번 고재무”, “2번 권광일”, “3번 권영훈”, “4번 권창호”, “5번 김경오”, “6번 김기성” “7번.....”



노력하고 봉사하는 삶을 약속하며

-7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정재일
(7회, 동기회장)

동기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웠던 정든 얼굴들을 상면하고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돌아가 은사님들과 친한 벗들과 즐거웠던 시간을 가진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군요 이 지면을 빌어 문안 인사 드립니다.

동문회로부터 졸업40주년 행사의 원고 청탁을 받고 이 지면을 통하여 고마웠던 분들께 감사의 글을 드리고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저 합니다. 처음 40주년 행사를 계획하고 발의되었을 때는 과연 60세를 훌쩍 넘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동기들이 참여 해 줄까 하는 걱정이 만만다는 반가움 보다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준비위원들이 결정되어 유영후 회장 등 전임 회장단과 박숙자, 유운자 여자동기 대표, 배동운 총무들이 모

여 계획을 세우고 연락망을 잔후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점검하고 독려하여 90명이 넘는 동기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늦은 시간 제자들을 위하여 먼 인천까지 와 주신 김종갑, 손동현, 이광표, 허인회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교의 중흥을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들을 모교로 초청하여 오랜만에 변한 캠퍼스의 모습과 앞으로 변할 모교의 청사진을 자상하게 브리핑 해 주시고 기념품까지 선물하여 주신 박명수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동기들을 자기집에 초청하여 함께 저녁을 한다는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녁 만찬을 전액 부담하여 준 알파항공의 이양현 회장, 또 큰 금액을 동기들을 위하여



우리 다시 만날 50주년에는 동양 최대의 약학교육의 전당으로 변한 모교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 만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중앙약대 7회들이 됩시다.



선뜻 협조하여 준 새한제약 이용원 사장, 물품으로 협찬한 유유의 강승안 사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다. 그리고 약학대학의 발전과 신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영욱 학장님께 고마운 마음과 함께 우리 모든 동창들이 동참하여 성원하였으면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이번 40주년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는 누구 보다도 배동운 총무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봉사가 그 바탕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여자 동기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외국에서 온 동기들에게 푸짐한 선물까지 준비한 박숙자, 유윤자 등 여자 동기들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교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고향을 찾아 수 만리를 날아온 미국의 김옥남, 김정희, 윤영희, 이기황, 이준종, 이희민, 이다미, 최운선, 캐나다의 서준용, 성수자 동기들 반가웠습니다. 더욱이 모교의 발전기금으로 10,000불을 쾌척한 이기황, 500만원을 쾌척한 김



옥남 동기의 모교 사랑에 중앙인의 열정을 보는 것 같아 기쁩니다.

그리고 전국 원근 각지에서 참석하여준 동기들과 그 내조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렵게 남편들의 모교 행사에 동행하여 주신 내조자들에게 너무 소홀하고 예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송구스러운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50주년에는 동양 최대의 약학교육의 전당으로 변한 모교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 만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중앙약대 7회들이 됩시다.

벗들이여! 좋은 소식들을 기대하면서 부디 건강 하소서.

성년, 그 자긍심과 책임감의 변주곡

- 27회 졸업 2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지며



현 기 원
(27회, 동기회장)

지금 밖에는 흰 눈이 펄펄 내립니다. 겨우네 가물어 모두가 걱정했는데 참으로 반가운 눈입니다.

갑자기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나와 연을 맺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 강남 센트럴시티 메리어트 호텔 3층 연회실에서 79학번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5년전 입학 20주년 행사를 갖고 나서 첫 모임입니다.

120명 입학 동기 중 45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다 모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오랜만에 만나보는 동기들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손동헌 교수님을 비롯하여 20여분의 교수님이 79학번의 성년식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약대 총동문회 임상목 회장님도 축하에 가늌해 주셨습니다. 성년 축하 케익 자르기와 교수님과의 만남, 최영욱 학장님의 학교발전 현황과 발전기금조성 현황도 소개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실험실

이 노후화 되어 쥐들이 실험실에서 튀어 나와 여학생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약대 강의실과 실험실이 건축되어 진다고 합니다. 우리 동기들 모두가 발전기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연로해 지셨습니다. 23년 전 MT에 가서 여학생들과 디스코도 추시고 부루스도 추면서 즐거워 하셨는데 이제 명예교수로 남아 계신다고 합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20년이라면 강산이 두어번 변화한 시절입니다. 우리 동기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때 그 모습입니다. 특히 부산 사나이 남상진, 강원도 강릉의 최종대, 춘천의 정용섭, 대구의 이은숙 동기에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기를 만나기 위해 그 먼길도 마다 않고 달려와 주어 고맙다는



지적재산권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

최근 몇 년동안 지적재산권, 특허권이라는 낱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지만 솔직히 본인 역시 대학시절에는 발명특허라는 말에 가까이 있지 못하였고, 1977년도부터 직장의 개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 상표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으며, 그해 특허청에서 실시한 특허전담요원 장기연수강좌에 참석한 것이 특허를 심도있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억된다.

그후, 특허전담요원으로 개발업무 외에 특허업무를 다년간 수행하다 보니 서당개 3년이면 풍월 읊는다는 식으로 변리사시험에 턱걸이로 운 좋게 패스되었는바, 그당시 직장상사분들의 도움은 물론이고 직장동료들의 마음의 응원덕이 아닌가 싶다.

어찌되었든 1년간의 변리사 수습까지 무사히 마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1983년도로 기억된다.

그당시 국내 제약업계에는 약사변리사로서 이상희, 박사룡 변리사님 두분이 계셨으니 내가 3번째 약사변리사로서 개업 15년을 맞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변리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발명을 위시한 특허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변리사의 업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고 있다.

즉,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국내외 출원 및 등록 업무, 심판, 소송, 감정 및 기타 기술상담 등 전문적인 고급 법률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2) 특허제도의 필요성과 그 목적

특허제도는 새로운 유용한 발명을 속히 공개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발명자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김재천
(17회, 변리사)

체계화한 제도로서, 발명자의 보호와 국가의 산업발전을 도모키 위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

발명(invention)은 원래 자연속에 내재하는 사물을 찾아내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발견(discovery)과는 달리, 인간의 두뇌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creation)으로서 고도의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같은 창작은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여야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 발명자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개인의 창작의욕 상실은 물론 기술의 노후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국가차원에서 특허법을 제정하여 발명가에게 노고의 대가로 일정 기간동안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보호해 줌으로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데 특허제도의 목적이 있다.

로 국가에서 발명자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개인의 창작의욕 상실은 물론 기술의 노후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국가차원에서 특허법을 제정하여 발명가에게 노고의 대가로 일정 기간동안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보호해 줌으로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데 특허제도의 목적이 있다.

3) 산업재산권의 연혁

특허법은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1624년에 제정된 특허법(Statue of Monopolies)이 효시로서 우리나라는 구한말 1908년 실시된 한국특허령이 공포되었고, 특허 1호로서 “말총모자”라는 특허가 허여된 기록이 있다.

1945년 일제의 암흑기 시대가 끝나고 광복에 의한 미군정에 의한 특허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특허요건 없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호원에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하는 자에게 특허가 허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정부조직법에 따라 1949년 특허국이 설치되고 특허법이 운영되었으며, 법률체계는 일본체계를 따르고 특허법 단일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4법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이 당시 심사체계는 준국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특허관련 국제조약은 가입된 바 없었고, 특허청구의 범위는 단항제이었다.

이후, 특허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1980. 5.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과 아울러

지적재산권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며, 세계시장을 독점적으로 석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선의의 무기이므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전략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1980. 12. 산업재산권 4법이 개정되어 1981. 1. 1. 부터는 특허청구 범위의 다항제의 채택, 출원공개 제도, 심사청구제도 등이 채택되었고, 1982년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에 따른 국제출원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

이후, 1987. 7. 미국의 요청에 의거 드디어 물질 특허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불특허 사유로 있던 의약발명, 용도발명, 식품의 제법발명이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1990년 1월에는 식물특허(괴경, 괴근, 구근)와 음식물이나 기호물에 대해서도 특허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4) 산업재산권의 내용

① 발명(Invention)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으로, 고도의 수준을 갖는 기술사상의 창작물이 이에 속한다. 재현성이 있어야 하고 영구운동이나 실시 불가능한 것은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발명을 한 자에게 허용되는 권리가 특허권이다.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용도의 발명, 장치의 발명 등이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이다.

② 실용신안(Utility Model)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므로 정의면에서 발명은 높은 기술수준을 대상으로하나, 고안은 낮은 기술수준을 권리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명과 고안은 다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뜻하는 것이어서 개념의 본질은 동일하다.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나, 무심사로 등록이 가능하며 권리주장을 위해서는 기술평가후 등록유지된 기술이어야 한다. 물품의 내부적인 구조 및 작동관계에서 종래의 것보다 진보되고 개량된 기술적 창작물이라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다.

③ 의장(Design)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신규의 의장을 창작한 자는 의장권을 하여받을 수 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다.

④ 상표(Trademark) : 발명, 고안, 창작 등은 모두 기술적 창작을 전제로 하나 상표는 선택의 의미가 많다. 즉, 상표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별히 현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5) 맺음말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 및 아이디어의 활용을 중심으로한 소위 지식기반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대두되며, 국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며, 세계시장을 독점적으로 석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선의의 무기이므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전략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특허와 관련하여 기업이나 국가전략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할 수 있는 변리사가 되기를 바라는 후배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맺는다.



약국의 현실과 미래

- 약국경영 활성화와 자공심 회복의 시작을 '선택' 합시다.

최 면 용 (27회, 미래약국)

최근 우리들 약사의 모습을, 의약분업이라는 상황에 잘 길들여져서 문을 밀고 들어오는 환자만을 기다리는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 모습으로 묘사한다면 다소 과장된 표현일까? 처방전이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고맙고, 적게 오면 또 적은 대로 체념해 버리는 어쩔 수 없이 의약분업이라는 상황에 '길들여진' 피동적인 상태라고 하면 또 너무 심한 자기비하일까? 2층에 또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주변 상가 임대료만 올려놓게 되는 피해의식에 젖어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억지 소리일까?

처방전의 절대 발행매수가 앞으로 증가할 여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현재의 의료재정 형편상 조제수가의 획기적인 인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조제전문을 표방하는 약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처방전 수용은 하향 평준화되어 처방전에만 의존할 경우 갈수록 약국경영이 어려워질 것은 분명한 일이다. 약국경영 활성화라는 기치 아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아로마요법 등을 통해 탈출구를 찾아 보지만 기초지식의 절대 빈곤과 준비 부족 및 그 동안의 조제 위주에 길들여진 타성에 의해 판매방법 조차도 희미해져서 그마저도 쉽지가 않다.

의약분업이 가져다 준 폐해는 약국의 수입 감소 외에 좀 더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동료 및 선후배 약사간의 극심한 반목과 대립이 그것이다. 엇그제까지 함께 근무하던 관리약사가 느닷없이 2층에 개업을 하여 가슴을 저미는가 하면, 십수년을 다정하게 지내던 선후배 사이가 약국개설 문제로 다시는 화합할 수 없는 관계로 변하는 경우도 생겨서 지역이나 동문을 위주로 한 모임은 급격히 해체되고 나 이외의 모든 약사들이 경쟁상대로

여겨져서 약국정보의 교류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의약분업은 또한 약사직능의 기형화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약사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약사들이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만 집중하는 사이, 한방과 일반의약품의 판매능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의약품 등의 판매가 고객의 지명구매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고객은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사는 적절한 제품등을 권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판매능력의 상실은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기성 약사들은 그래도 분업 이전, 한방이나 일반제품의 판매에 대한 경험이라도 있지만 분업 이후 배출된 새내기 약사들은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경험이나 방법 및 상담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처방조제라는 미명 하에 아예 차단당하여 갈수록 일반의약품 등은 우리의 손에서 멀어져 가고만 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지식은 일정 부분 늘어갈지 모르겠지만 약사의 중요한 직능 중의 하나인 일반의약품과 한약 등에 대한 상담이나 판매능력은 갈수록 피폐해져서 궁극으로는 약사들의 손을 아주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 또한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커다란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이고,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약사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사로서의 자신감 회복과 약사영역의 확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즉 의약분업 이후 길들여졌던 그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었던 사슬을 과감히 끊어 버리고 우리 약사의 관심영역을 처방조제뿐

아니라 한방 및 일반의약품 등의 판매 확대 쪽으로도 넓혀 약국활성화를 적극 꾀한다면 약국의 수입 증가와 함께 자신감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약국의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로 조제 이외의 부분에서 약국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일반의약품 판매 확대, 건강보조식품 및 한방의 활성화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절대 아니고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변신에 성공한 몇몇 약국의 경우를 본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가 의약품에 대해 갖는 자신감은 대학교과 과정에서 그 기초를 쌓고 지속적인 약물의 정보습득에 근본을 하는 것처럼 대체의학을 자유자재로 다루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보 및 지식의 습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체의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다단계식의 방문판매처럼 단지 제품의 적응증과 가격만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건강에 대한 전문가적 자세로서 접근하여 다양한 질환의 이해는 물론, 해당 제품의 분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부작용까지 철저히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런 지식의 축적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감을 갖고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 극도로 발달한 현실에서는 오히려 고객들이 약사를 능가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설픈 지식을 적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약국활성화에 있어 일반의약품 등의 지식습득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판매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판매기법의 시작은 제품에 대한 믿음이다.

편리한 판매를 원한다면 광고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제품을 권하는 것이지만 약국의 개설목적 중 하나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니 만큼 동일성분의 대체의약품이 조제뿐 아니라 일반의약품 등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즉, 대체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단지 약국의 마진확보만을 위한 치졸한 행위가 아닐뿐더러, 환자에게는 동일효과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약사는 일정 부분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제가 되어야 할 점은 대체의약품의 품질에 대해 직접 판매하는 약사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약사 스스로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판매에 자신이 없어지게 되며 괜한 죄의식을 가지게 될 뿐이다.

다시 말하면 광고 제품의 가격이 상당부분 광고비로 구성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단지 유명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에 집착하여 스스로가 제품 광고의 추종자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처방조제를 함에 있어 대체조제에 대한 자신감과 당위성은 갖고 있으면서 일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제품과 카피 제품과의 편견을 갖게 된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킨다고 하는 약사의 자긍심도 약국의 수익이 보장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전 보다는 오히려 일반의약품 등의 활성화를 통한 약국수익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약국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약사 개인의 변화'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약사회의 역할이므로 다양한 정책개발이 반드시 요구된다.

면 약사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의 약국은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벗어나 전산화를 통한 경영 마인드의 도입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의약품의 처방조제는 이미 거의 완벽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으나, 판매에 관한 한 대부분의 약국이 아직 전산화가 미흡하여 단지 기억이나 수기 장부에 의해서 제품관리나 고객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여 고객을 관리하고 약국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며, 또한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유효기간 경과 등에 의한 약국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경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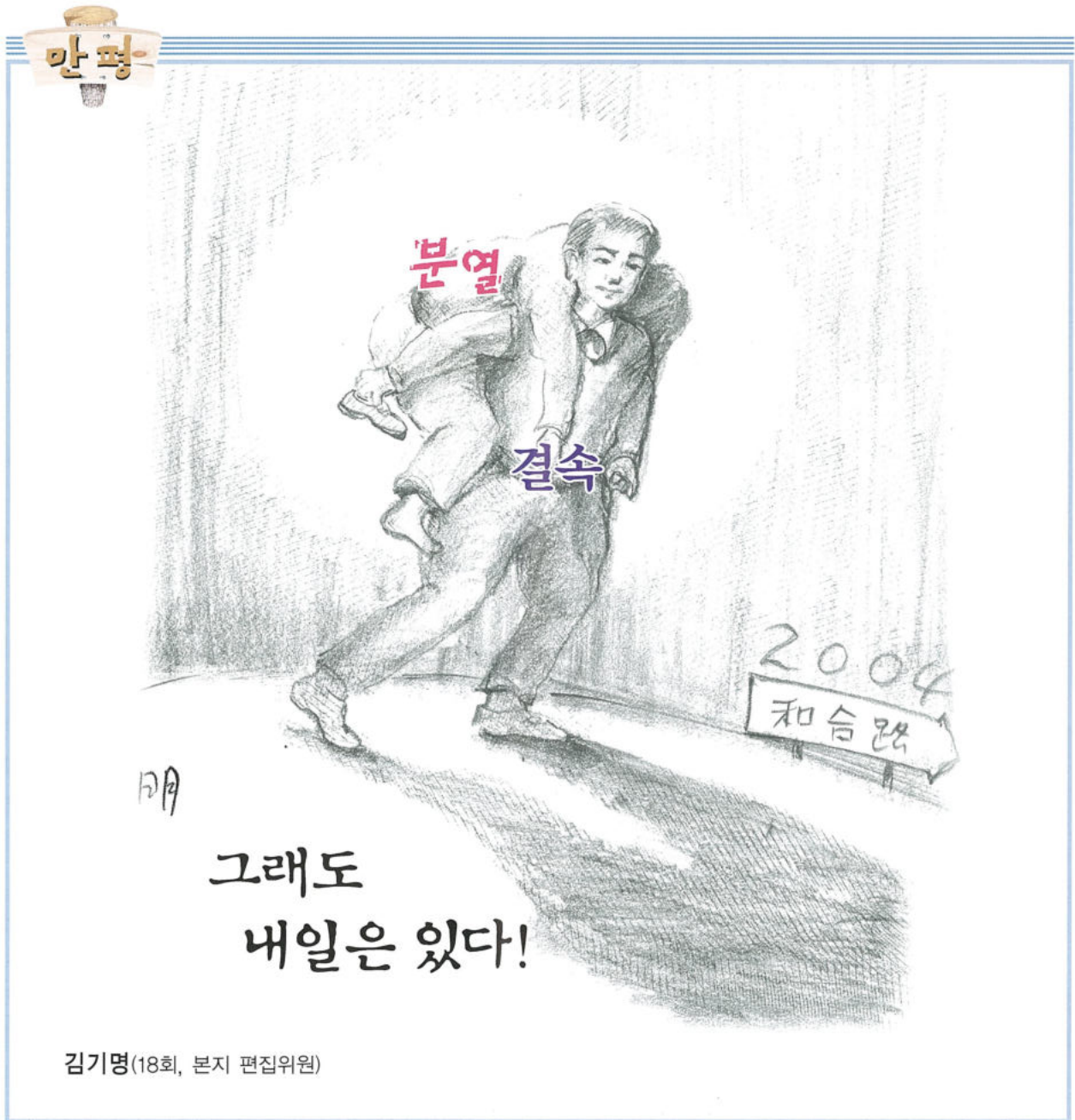
현재 약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의 획득이 약사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성분명 처방과 약국의 수입 증가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성분명 처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처방전의 절대 발행 매수

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환자의 약국 선호도가 병의원과의 거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약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약국의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최대의 희세를 쏟아야 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킨다고 하는 약사의 자긍심도 약국의 수익이 보장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전 보다는 오히려 일반의약품 등의 활성화를 통한 약국수익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약국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약사 개개인

의 변화'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약사회의 역할이므로 다양한 정책개발이 반드시 요구된다. 단지 생색내기용이며 구호에만 그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모든 약사를 동참시키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앞으로의 약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예측'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실에 길들여져 눈 앞의 조그만 이익에 만족하여 갈수록 작고 초라해지거나, 아니면 극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움을 갖는 약사가 되거나 하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선택' 말이다.



행사

- 2003년 11월 29일 17회 졸업 30주년 기념 : 메리어트호텔



- 2003년 11월 16일 목원회 25주년 기념 및 김종갑 명예 교수 회수연 : 팔레스호텔



- 2003년 11월 18일 흑중회 모임
 신입회장 : 김승업(11회) 총무 : 이광섭(24회)
 신입회원 : 박찬희(11회)



- 2003년 11월 1일 27회 졸업 20주년 기념
 메리어트호텔 미팅룸
- 2003년 11월 15일 7회 졸업 40주년 기념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 2004년 2월 29일 강남지부 정기총회 : 하르방



- 2003년 11월 22일 모교 교수송년모임 : 팔레스호텔
- 2004년 1월 9일 신년교례 : 동문회관
- 2004년 2월 5일 여동문회 신년교례 : 동문회관

결혼

- 2003년 11월 8일 안재민(3회) 이사 자녀결혼
- 2004년 1월 11일 전승규(7회) 이사 자녀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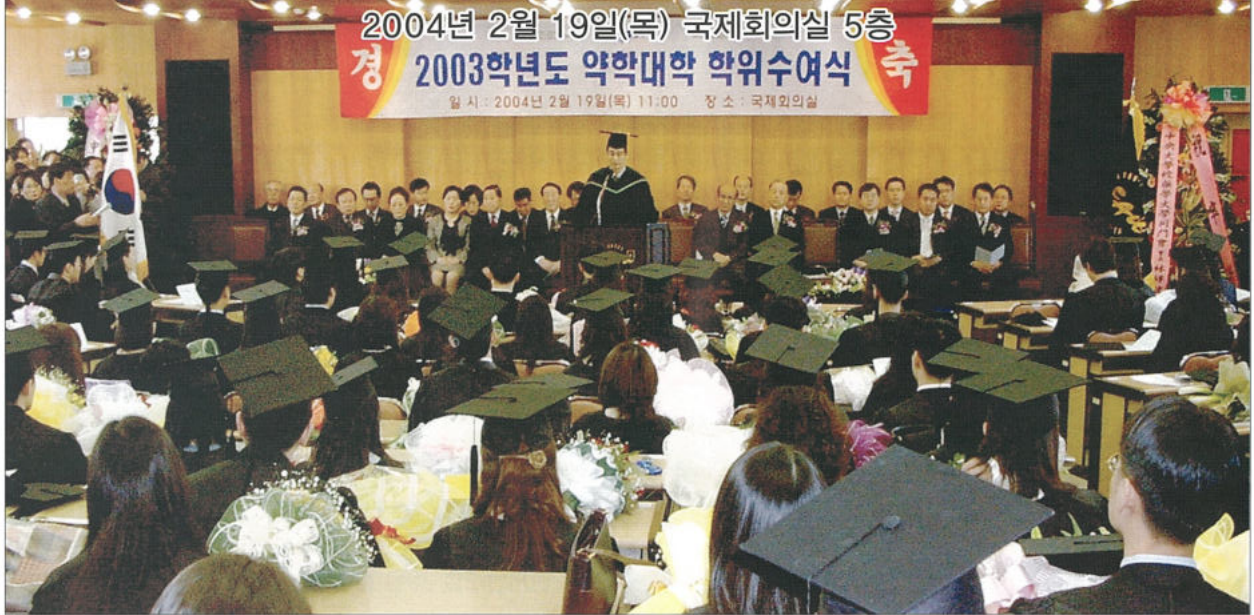
부음

- 2004년 1월 6일 신상직(17회) 이사 병부상
- 2004년 2월 21일 오종철(11회) 이사 타계

인사

- 김용옥(3회) 명예박사 수여

2003년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지난 2월 19일 모교 국제회의실에서 2003년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이 모교 교수들과 학부모, 그리고 후배들의 축복속에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135명의 새내기 약사들이 사회로 진출하였다.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2004년 2월 22일(금) 중앙문화예술과 대극장



모교에서는 인류문화의 향상과 산업발전 및 학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김용옥(3회) 건일제약(주) 대표이사 회장에게 중앙대(박명수 총장)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주었다. 김용옥 회장은 2월 16일 모교를 방문하여 후진 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5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발전기금 조성 내역

총 18억 8천 2백 3십 만 원 (2004년 2월 23일 현재)

교 수 총 13,300 만 원

- 〈교내〉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염정록(700), 김창종(500), 김미영(500),
 이도익(500), 이민원(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손의동(500)
 천영진(500), 김종갑(500), 손동현(500)
 이광표(500), 홍순각(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 〈타교〉 오유진(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한성순(100), 임세진(300)

학 생 총 5,350 만 원

동문회장단 총 19,000 만 원

- 유영후(1,000), 조의환(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정재일(500), 이기안(500), 임상묵(500), 박숙자(500),
 김연희(500), 이규진(500), 박호일(500), 유정사(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열(500),
 김승재(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정찬현(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단 체 기 부 총 1570 만 원

- 중삼친목회(300) • 미주(L.A.) 3회 동기회(5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7회 동기회(500)
- 7회 약우회(박숙자 외 11명)(120)

학부모 및 기타 총 400 만 원

- 한충강('02 한인빈 학부모, 300)
-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 100)

개인·부부동문 총 147,610 만 원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 〈1회〉 손동현(500), 오유진(300), 이광표(500), 홍흥만(300)
- 〈2회〉 고두훈(박명자 부부, 700), 서화택(500), 홍순각(500),
 황인규(300), 황재수(100), 한성순(100)
- 〈3회〉 김석자(300), 김용옥(50,000), 조영만(이정자 부부, 50),
 한만우(1,000)
- 〈4회〉 김기호(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흥기(300), 허인회(500)
- 〈5회〉 박명자(고두훈 부부, 700), 이송학(300), 이해석·강태일
 부부(1,000)
- 〈6회〉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환(300), 유상열(300), 이준장(100),
 임철부(1,000), 추의호(300), 홍병석(300)
- 〈7회〉 강승안(500), 김영일(300), 김옥남(5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자(300), 박명신(300), 박숙자(500),
 박옥규(300), 유영후(1,000), 유윤재(300), 이기황(1,150),
 이기안(노신희 부부, 500), 이능세(300), 이양현(500),
 이준종(60), 인고길(300), 임종홍(300), 이정자(조영만
 부부, 50), 정재일(500), 차승현(300), 한철희(300)
- 〈8회〉 김연희(500), 김형이(500), 문옥재(300), 박찬수(300),
 신현우(100), 윤주섭(300), 이백천(1,000), 이조열(300),
 임상묵(500), 정재용(300), 조의환(1,000), 한석원(500),
 허근희(300)
- 〈9회〉 김영부(500), 노신희(이기안 부부, 500), 서황석(500),
 이규진(500), 이근배(100)
- 〈10회〉 김삼균(300), 박호일(500), 방순환(12,000), 서정목(300),
 유정사(500), 이대윤(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승수(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 〈11회〉 김승업(300), 김창종(500), 민대식(300), 박찬희(300),
 이철규(50), 정덕호(500), 최옥출(100), 홍금재(남기탁
 부부, 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 〈12회〉 강옥희(500), 김 구(500), 김초성(100), 남기탁(홍금자

- 부부, 500), 노덕재(300), 박영찬(1,000), 염윤기(300), 이성우(500), 이정희(300), 이호섭(300)
- <13회> 김신미(10), 김종성(400), 박동규(300), 문재빈·김애련 부부(500), 서국진(500), 안병식(1,000), 윤창현(300), 조종목(300), 이종각(박종애 부부, 500), 조성복(홍순경 부부, 500)
- <14회> 김명웅(1,000), 김원순(300), 김종열(500), 윤대봉(500), 이규식(500), 정도연(1,000), 정진모(300)
- <15회> 김승태(400), 김용익(300), 박석동(5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 <16회> 강명채(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김성광(100), 박종애(이종각 부부, 500), 우상규(300), 윤영로(200), 조기현(300), 한인희(300), 홍순경(조성복 부부, 500)
- <17회> 김인형(500), 선우영환(방금숙 부부, 500), 신상직(5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
- <18회> 강응모(성낙순 부부, 500), 김기명(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조중형(300)
- <19회> 권광일(300), 권영훈(300), 권창호(300), 김경오(500), 박효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 <20회> 김영섭(300), 김종갑(300), 김현태(500), 박기배(300), 방금순(선우영환 부부, 500), 송열호(3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이상일(500), 임구래(300), 임경원(이현숙 부부, 1,000), 정영수(300), 정찬현(4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 <21회> 김대일(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박전희(100), 여경남(300), 이규섭(300), 이세진(500), 전명선·김민숙 부부(300)
- <22회> 김홍진(500), 손의동(500), 오황영(400), 유대식(300), 이상돈(100), 이정석(300), 전일오(300), 정진호·강명희 부부(500)
- <23회> 강호영(100), 공인호(300), 권석형(500), 김영식(300), 김항만(300), 박종화(1,000), 박희용(100), 양재업(100), 이도익(500), 이승하(300), 이원길(300), 이정대(1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 <24회> 김관식(500), 김상현(300), 오동근(300), 윤규형(500), 김승재(김희식 부부, 500), 이광섭(300), 이규삼(100), 이범도(300), 이영주(300), 임무호(500), 정상수(300), 조종래(500), 최영욱(1,000), 함삼균(50), 최재윤(김윤경

- 부부, 500), 함한성(300), 홍용기(300), 황규진(300)
- <25회>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춘규(100), 김희섭(300), 성낙순(강응모 부부, 500), 위성건(500), 이내홍(300), 이민원(500), 이재희(김은진 부부, 5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 <26회> 김안식(300), 김영후(300), 라종우(300), 문형철(300), 박재길·오옥희 부부(5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심상수(500), 이영준(300), 이종량(300), 정태형(300), 이창훈(이숙희 부부, 500), 진희역(300), 최민규(300), 황완균(500)
- <27회>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홍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각각 300씩 총 2,100), 김정호(300), 남상진(300), 박수길?이정아 부부(500), 박영달(300), 방만성(조순연 부부, 500), 안희영(300), 양건모(300), 오영돈(300), 이선애(100), 최기선(300), 현기원(300)
- <28회> 김영희(300), 김윤경(최재윤 부부, 500), 김유근(500), 김희식(김승재 부부, 500), 박용석(100), 박우종(300), 양덕숙(300), 이병천(300), 이숙희(이창훈 부부, 500), 이해룡(300), 임세진(300), 임채욱(500)
- <29회>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자(300), 김은진(이재희 부부, 500), 서경원(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이준(300), 이철(300), 정진호(300)
- <30회> 김광식·윤기숙 부부(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서봉호(100), 신일균(300), 이인자(300), 장부자(300), 조덕희(300), 조순연(방만성 부부, 5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 <31회> 김진홍(300), 김하형(500), 박건규(50), 이현숙(임경원 부부, 1,000)
- <32회> 고은미(300), 박은미(300), 조양연(300), 채영주(300)
- <33회> 박재훈(240), 임희원(300)
-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 <35회> 곽정근(300), 권준한(300), 황광우(500)
- <36회> 방극상(50), 안영운(300), 우경아(300), 임성호(300),
- <37회> 오상희(100), 정병욱(300)
- <38회> 박용석(300)
- <40회> 한국약품(이병두, 300)
- <43회> 강규태(100), 김중호(100), 신명숙(300)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

(2003년 7월 4일 ~ 2004년 2월 4일)

회장단 회비(연24만원)

- ▷ 8회 : 임상목, 조의환, 김돈기, 허근희
- ▷ 9회 : 권혁구, 이규진
- ▷ 10회 : 박호일, 유정사
- ▷ 11회 : 정덕호, 황공용, 박찬희
- ▷ 12회 : 노덕재, 이호섭
- ▷ 13회 : 서국진, 안병식
- ▷ 14회 : 엄태항, 김종렬
- ▷ 16회 : 최광식, 조기현
- ▷ 17회 : 양희익
- ▷ 18회 : 정명진, 양만기

이사회비(연12만원)

- ▷ 1회 : 홍홍만, 손동헌, 김욱동
- ▷ 2회 : 고두훈, 지선훈, 정덕화
- ▷ 3회 : 최종목, 박종순, 안재민, 노인배, 성열호, 선우연
- ▷ 4회 : 김현용, 박노일, 천흥기, 이창우
- ▷ 5회 : 김중무, 김영배
- ▷ 6회 : 안병한, 유상열, 김경희, 김동열, 박정배, 김명기
- ▷ 7회 : 유윤자, 김영덕, 전승규, 임종홍, 정재일, 유영후, 최용선, 서명규, 김정부, 한철희, 이기안
- ▷ 8회 : 이백천, 박번일, 김홍자, 김형이, 문옥자, 김신자
- ▷ 9회 : 이근배, 황태선
- ▷ 10회 : 이양원
- ▷ 11회 : 민대식, 박신규, 김창종, 김미자
- ▷ 12회 : 이호훈, 우준하, 현병호
- ▷ 13회 : 이종각, 최창엽, 문재민, 김병현
- ▷ 14회 : 안태화, 지성배, 김명용, 박기진
- ▷ 15회 : 조찬휘, 김용의
- ▷ 16회 : 권명복, 강명채, 이상규
- ▷ 17회 : 신상직, 이동우, 김인형
- ▷ 18회 : 송용만
- ▷ 20회 : 이호선, 이극선, 박기배, 유영내
- ▷ 21회 : 김수배, 백기홍
- ▷ 22회 : 강희윤, 고부환, 오황영
- ▷ 23회 : 방용남
- ▷ 24회 : 이형수, 정종근, 함삼균, 원경선, 심영철, 이범도, 최명배, 윤규형, 장규옥
- ▷ 25회 : 조석현
- ▷ 26회 : 진희역, 김정수(B)

- ▷ 27회 : 오흥설
- ▷ 28회 : 김희식
- ▷ 30회 : 도민숙, 고석일, 최병원, 김성배, 김광식

일반회비(연2만원)

- 1회 : 허필준, 안영희, 조성애
- 2회 : 홍순각, 박명한, 김좌상, 김선동, 황인규, 한성순, 박필일, 김홍식
- 3회 : 임종환, 심한섭, 임성혁, 조래옥, 정래수, 이요식, 이계주, 구웅서
- 4회 : 이영아, 이경석, 홍범표, 최중화, 정복영, 김영재, 신응섭, 고정식, 박호원
- 5회 : 손규산, 민홍식, 임맹순, 김원진, 조복희, 강희복, 오상오, 오운교, 이금교, 문세주, 김원전, 임갑환, 김주원
- 6회 : 김영재, 신의명, 홍병석, 정진석, 홍성호, 유복상, 전희태, 권종악, 조중래, 이준장, 박배원, 이풍기, 이종호, 이원걸, 심현수, 이태호, 최성천, 신현곤, 홍헌표, 신현수, 양현홍, 김영기, 오세민, 김태춘, 강천식
- 7회 : 조익중, 인고길, 윤태정, 정연홍, 김영일, 이상현, 송정애, 박래식, 이홍수, 광상빈, 박대규, 손종화, 최성립, 유효희, 이정학, 문춘일, 박주현, 박용준, 송정애, 문영준, 조경신, 김원지
- 8회 : 김기중, 정재용, 이숙자, 임영숙, 최병준, 임성빈, 유재우, 김원희, 유병호, 최문정, 강윤구, 서동섭, 김범수, 김희선, 손영복, 이영복, 신현우, 엄규중, 권태수, 오창준, 박수일, 윤광중, 문제영, 박찬수, 박용문, 이경일, 허정자, 조수현, 장동진, 이정복, 안승간, 안덕기, 박재웅, 김의정, 이태하, 박유환, 정재영, 홍신표, 최승치, 정달수, 차인봉
- 9회 : 김영부, 박장우, 권오성, 신우식, 손승언, 이규형, 이경주, 박장규, 김학진, 장성현, 주신자, 김영창, 김태선, 이동희, 이만규, 최영근, 임승진, 노신희, 정석태, 조경자, 한정희, 허 용
- 10회 : 방순환, 이장열, 김광일, 홍성민, 정영기, 이원일, 박광일, 변도문,
- 11회 : 박승보, 김재곤, 김철홍, 양계창, 차영진, 안홍신, 하만웅, 이의공, 이석태, 강일성, 고승하, 김정길, 백갑환, 신명승, 구자역, 김기승, 김승업, 이범진,

- 송상부, 이기호, 송병기
- 12회 : 정기순, 박광자, 김두학, 민명임, 이정희, 김주애, 최복자, 황순오, 이만오, 오수치, 민명님, 엄홍식, 전희자, 김광혁, 김대건, 송춘식, 장석훈, 박명규, 이광호, 이성우, 박홍식, 김정박, 신관호, 김윤탁, 우홍길, 홍근수, 오형철
- 13회 : 최승기, 윤해선, 김신미, 유용상, 안상희, 김인호, 강태주, 손찬규, 설은규, 이삼우, 문우호, 임동욱, 김태중, 박인재, 임근영
- 14회 : 신채봉, 이용성, 김경수, 우영철, 안해봉, 김인덕, 김현숙, 최종택, 현혜경, 전봉선, 유관희, 유효성, 전영표, 홍성철, 현수홍, 김병윤, 김영남, 이병조
- 15회 : 박명배, 나인준, 박태호, 김태영, 이명숙, 정현우, 왕수현, 이재원, 이덕노, 왕수연, 정동욱
- 16회 : 윤영위, 이규주, 박창호, 신규연, 최장순, 송정복, 김관호, 김 현, 변영호, 이재용, 이상현, 고숙자
- 17회 : 선우영환, 안병조, 박재식, 유종관, 김현화
- 18회 : 여운숙, 유덕희, 남애숙, 최정순, 박원래, 박인환, 안영희, 홍현식, 권영철
- 19회 : 남윤수, 김상좌, 이남식, 최철희, 김종달, 김동희, 배영덕, 이석명, 송택용, 고재무
- 20회 : 조진환, 윤춘수, 정동천, 이종훈, 방금숙, 안연준, 지태현, 임경원, 방재환, 구장림, 차재근, 정금숙, 정택일, 이영숙, 최인걸, 남덕자, 박광우, 유재형, 최용철, 김영남, 이종훈, 강혜옥, 김홍진, 박문수
- 21회 : 송진용, 이두순, 최순중, 이진경, 이만형, 박후신, 최병철, 박제천, 안병현, 어경남, 신길득, 정재일, 강창만, 이세진
- 22회 : 심재호, 한상훈, 장용운, 전일수, 이정석, 김철수, 김태일, 천경호, 한만영, 신이철, 구재호, 고석순, 이현희, 박동우
- 23회 : 최경선, 안봉국, 김수중, 이건주, 은성기, 조병학, 오항록, 한용문, 임창영, 이영림, 박희용, 이원길, 김영출, 나용태, 김순현
- 24회 : 홍용기, 양성철, 박은원, 최금순, 장순경, 김재천, 조중연, 김기준, 정상수, 강창주, 김원준, 권영직, 홍순철, 김인숙, 임무호, 김봉문
- 25회 : 손현운, 김완기, 위성건, 원성재, 이명금, 전경숙, 김선열, 한덕화, 조대현, 문태화, 김춘규, 임흥기
- 26회 : 정태형, 신현동, 김유현, 박주돈, 김형남, 윤용혁, 정기춘, 최민규, 조필연, 조병호, 이근주, 이영준, 김형배, 최고석, 최종배, 이채권, 양승훈, 이순아, 문형철, 김재억, 김안식
- 27회 : 안희영, 고영주, 이병일, 김정호, 양건모, 김재식, 오영돈, 현기원, 송재욱, 이영옥, 강찬신
- 28회 : 남궁용, 윤미원, 조상오, 오용식, 정현숙, 임춘식, 이용해, 이상수, 이석원, 김광선, 이은주, 고재호, 유희동, 정원태, 양창국
- 29회 : 이경우, 강철선, 한일룡, 강선영, 유인석, 강대용,

- 김영자, 김응관, 장승학, 양승모, 강춘원, 이상원
- 30회 : 전두한, 김연하, 윤기숙, 이경숙, 김형수, 조덕희, 최현희, 곽필신, 강현주, 어은주, 서정봉, 김양수, 김선겸, 김희진, 고은숙, 이은경, 박영자, 이보애, 김혜수
- 31회 : 구상미, 정혜경, 유문숙, 유인숙, 최미숙, 임기상
- 32회 : 채영주, 김재섭, 도곤희, 최문석, 장재현, 김용미, 박래경, 김미숙, 정현상, 강수미, 정세진, 신난월, 나희진, 조양연
- 33회 : 우선찬, 소정우, 이종탁, 김소연
- 34회 : 박상권, 이영은, 김종국, 윤덕수, 이 준, 이선우, 강선희
- 35회 : 서유정, 김성훈, 박은주, 최정원, 이종만, 봉은희
- 36회 : 김미향, 유동명, 임기민, 방극상
- 37회 : 황선관, 신희관, 김성엽, 전상인
- 38회 : 정필련, 임규리, 구둘련, 임정은, 이창연, 류미라
- 39회 : 길봉진
- 41회 : 이미경
- 42회 : 최재희, 민명기, 이철안
- 43회 : 김일화, 장선영
- 44회 : 김수길
- 45회 : 심미순, 박수현, 윤종준
- 46회 : 신현아
- 47회 : 박정실, 이용진, 박준영, 이상완, 김병수, 손진혁, 이상영, 최 훈, 안지현, 문희경, 이현우, 최은혜, 서은아, 양병찬, 김시우, 원재희, 이상영, 강철민, 김영필, 김영준, 전형진, 전주만, 이영이, 강영미, 김민영, 김형연, 박선경, 박준영, 임충민, 이동규, 이윤기, 주강현, 박시내, 이성재, 이병무, 김종석, 이동훈, 엄고혜, 이혜진, 배나래, 손형운, 권은숙, 주민경, 최세경, 최명식, 채현주, 박정실, 박태환, 서지연, 한아름, 성나미, 류혜리, 김현수, 원정은, 김희정, 이은형, 박 석, 이주연, 이종화, 이은희, 장성필, 임윤정, 전승미, 조영래, 정영일, 정경은, 지청산, 강수진, 심현진, 신현주, 김세영, 김성준, 김병수, 김미경, 김기돈, 권용환, 김용성, 김향미, 김진표, 김준희, 박유경, 박숙현, 원미경, 윤혜경, 원태준, 이상완, 이상수, 양은미, 안지현, 이용진, 손진혁, 오준호, 고연아, 구영희, 하진주, 탁재현, 최 훈, 최진희, 최정원, 한유진, 한원선, 한수정, 한상덕, 황인선, 한정훈, 우재광, 이효진, 김윤정, 박인선, 박지애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 중앙약동문회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이제는 봄이구나

이 해 인

강에서는
조용히 얼음이 풀리고

나무는
조금씩 새순을 틔우고

새들은
밝은 웃음으로
나를 불러내고

이제는 봄이구나
친구야

바람이 정답게
꽃이름을 부르듯이
해마다 봄이면
제일 먼저 불러보는
너의 고운 이름

너를 만날
연둣빛 들판을 꿈꾸며
햇살 한 줌 떠서
그리움, 설렘, 기다림...
향기로운 기쁨의 말을 적는데

꽃샘바람 달려와서
네게 부칠 편지를
먼저 읽고 가는 구나, 친구야

Spring is.....

甲申年이 밝았다.

60년 전인 1944년 甲申年이 해방을 위한 일제에 대한 마지막 어두움이 몸부림치던 해라면 160년 전인 1884년 甲申年은 실패한 개혁자 金玉均의 개혁이 절정에 달했던 해였다. 2004년 甲申年은 內外的으로 개혁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직선제에 의한 젊은 會長의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가 하면 國家的으로는 젊은 대통령에 의한 국가운영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떠오르는 구절이 있다.

「溫故而知新」

우리 동문회도 이제는 개혁의 목소리를 전면으로 수용하되 과거의 전통을 이어 받아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義에 죽고 참에 사는」 정신을 새로이 정립해야 될 때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明

선배!!

로마제국의 멸망이란 영화를 기억할지 모르겠소.
스티븐 보이드, 소피아 로렌, 알렉 기네스, 크리스토퍼 팔머, 제임스 메이슨, 오마 샤리프 등 쟁쟁한 명배우들이 나왔던 추억의 영화였는데, 서기 180년 로마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게르만족과의 마지막 정벌이 끝나갈 때쯤 자신의 후계자로 아들 코모도스 대신 양아들 리비우스를 지목하면서 분노와 질투에 휩싸인 코모도스의 폭정으로 인해 로마제국의 운명이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데... 결국 위대한 문명은 외부의 침략에서가 아니라 내분에 의해 붕괴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소이다그러...

唐

우화 : **철이 싫어 중이 떠나다**

누구는 누구와 친하다고 하고
누구는 누구와 불편하다고 하네.
누구는 누구에게 섭섭한 일이 있고
누구는 누구에게 마음 상해 있다고 하네.
누구는 누구의 따지를 건 일이 있고
누구는 누구에게 그 빚을 갚았다고 하네.
누구는 누구에게, 그 누구는 또 다른 누구에게...
그런 것이 세상 살이임을 모르는 누구 또한 없다네.
그래도 알아야 할 것이 있네.
누구와 누구, 그 누구와 또 다른 누구는 남이 아니었다네.
못나고, 용기 없고, 때로 비굴하기도 한 그 누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그림자라네.
보듬고 살 것을, 위로하며 살아갈 것을...
- 한심한 일상, 권태로운 나날
하여, 용기 없는 누구 떠나기로 했네.

〈편집위원장〉 황공용(11회) 〈편집위원〉 정명진(18회), 김기명(18회), 박희용(23회), 이준(29회)

동문여러분의 육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세상을 건강하게 합니다

당신의 웃음이 모여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당신의 밝은 모습이 모여 세상은 더욱 푸르러집니다.
Total Healthcare Service를 통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The First NSAID TDDS Plaster

The First Choice(처방건수 1 위)

Once-Daily(1 일 1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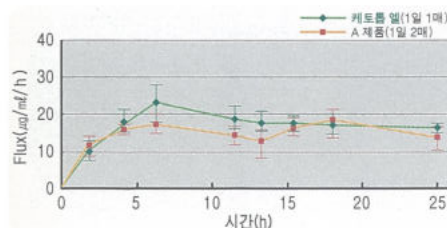
No.

Advanced TDDS-Technology
Once-Daily, TDDS Pl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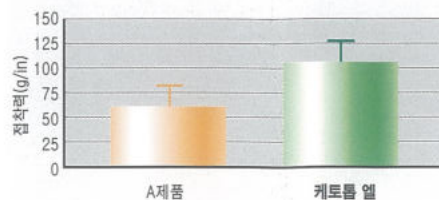
케토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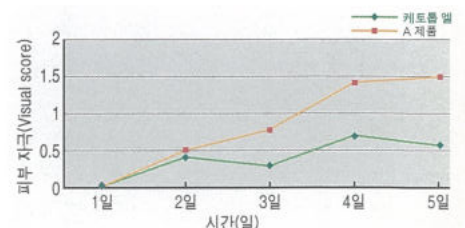
➔ 24시간 지속적인 약물전달 및 피부흡수로 소염·진통효과가 우수합니다.



➔ 신축성 Backing을 적용하여 굴곡부위에 사용이 용이합니다.



➔ 피부자극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1일 1매 사용으로 환자순응도와 처방편의성이 우수합니다.

➔ 보험청구코드: A02304021



태평양제약

상담전화: 080-023-3900
www.pacificpharm.co.k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